



김여울 기자 광주 FC 시즈오카 캠프를 가다

‘GPS 축구’로 클래식 연착륙 지름길 찾다

몸에 부착하고 日 실업팀과 연습경기 뒀 거리·순간 속도 기록, 경기력 평가 새팀·새전술 훈련...스피드맨은 김호남

광주 FC가 GPS로 클래식 연착륙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고 있다.

광주 FC 선수단은 11일 오전 시즈오카 캠프에서의 두 번째 연습경기를 치렀다. 지난 8일 캠프에서의 첫 연습경기를 1-0으로 마무리 했던 광주는 일본 실업팀 아줄 클라로도 3-1로 꺾었다.

연습은 달했지만 남기일 감독에게는 아쉬운 두 경기였다. 첫 번째 경기가 끝난 뒤 신인 선수들에게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하라고 호통을 쳤던 남 감독은 이날 경기 뒤에는 전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비쳤다.

두 번째 연습경기의 라인업은 새 얼굴로 가득 채워졌다. 송승민과 안성남을 제외하고는 골키퍼 주정우를 비롯한 허재녕, 박선홍, 박성용, 주현우, 송성범, 류범희, 이윤준, 권영호 등 모두 신입생이 새 판을 썼다.

이제는 새 팀, 새 전술이 익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지는 못한 모습이었다. 경기 내내 남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주문을 쏟아내느라 분주했다.

류범희의 골로 전반을 1-0으로 마감한 광주는 후반에는 박일권과 김의신을 투입하며 전력 구상을 이어갔다. 후반 10분 상대팀이 대기 선수 교체를 하지마자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며 체면치레는 했다. 송승민이 왼쪽에서, 교체해 들어간 박일권도 중앙을 공략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승리를 거뒀지만 아쉬움이 남은 남 감독은 한 동안 그라운드에서 강의를 펼쳤다. 선수들을 상황에 따라 각각 위치에 세운 뒤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예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전술적인 이야기로만 이들의 경기 복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에게는 스스로 풀고 고민해야 할 ‘숫자’가 제시됐다.

광주 선수들은 GPS칩을 부착한 채 연습경기를 뛰고 있다. 경기를 하는 동안 선수들이 뒀 거리와 순간 속도 등이 기록으로 남는다. 길레미 피지컬 코치가 직접 브라질에서 들고온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데이터를 통해 선수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지를 평가한다.

힘난 클래식 무대의 연착륙으로 가는 길을 GPS를 통해 더 빠르게 찾고 있는 셈이다. 벤치의 경험과 세밀한 데이터까지 접목되면서 광주의 전력구축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됐다. 여기에 ‘누가 가장 빠르냐’를 놓고 벌이던 논란(?)도 무의미해졌다.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록이 말해주는 광주의 가장 빠른 선수 타이틀은 역시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김호남이 차지했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박선홍(오른쪽)이 11일 일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가 연습구장에서 열린 일본 아줄 클라도와와의 경기에서 공을 다루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런트-스태프 코믹 축구로 스트레스 뺄~ 5:5 미니게임 하며 일과 마무리

매섭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코칭스태프의 표정이 달라졌다. 옆에서 묵묵히 선수들 지원 업무를 하던 현장 스태프는 그라운드에서 주인공이 됐다. 뛰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나 “이게 무슨 축구냐”며 웃느라 정신없었던 광주 FC 시즈오카 캠프 5대5 미니게임의 현장이었다.

지난 10일 오후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하나 둘 짐을 챙겨 숙소로 돌아간 뒤 경기장 한 곳에 이색 골대가 준비됐다. 콘으로 세워진 골대 앞에서 팀을 구성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 내기 이야기로 오갔다.

“마찰준만 조심하면 된다”며 남기일 감독이 킥 오프를 알렸다. 전·후반 10분씩으로 나눠 시작되는 게임.

스파이크를 단단히 챙겨 신은 선수들이지만 뒀가 이상하다. 공과는 상관없는 질주, 골대 앞에서 넘어지는 일도 다반사다. 서슴없이 상대를 붙잡고 밀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축구가 이어졌다.

경기장 밖에서 노심조사 캠프를 지켜보고 있는 코칭스태프와 현장스태프가 한데 어울려 팀을 구성한 것이다. 남기일 감독은 기우성 골키퍼 코치, 서주환 통역, 김용호 트레이너, 정민와 주무와 한 팀을 이뤘다. 정기봉 수석코치 팀은 마찰준 플레이 코치, 길레미 피지컬 코치, 정재선 분석관, 김범수 트레이너로 꾸려졌다.

현역이나 다름없는 마찰준 플레이 코치가 있는 수석코치 팀이 유리할 것 같았던 경기는 남기일 감독의 선제골과 함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됐다.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남기일 감독이지만 미니게임의 전략은 ‘침대 축구’였다. 그 중심에는 기우성 골키퍼 코치가 있었다. 상대팀이 포지션 파괴를 하며 총 공세에 나선 반면 기우성 코치는 콘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상대의 원성을 샀다. 철

벽 방어와 함께 아신이라는 칭호도 얻었다.

“끝나보야 안다”며 장기봉 수석코치가 동료들을 독려했지만 선수출신의 서주환 통역과 정민와 주무의 발재간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는 5-1, 남기일 감독 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싸움닭 마찰준 코치는 “자존심이 상한다”며 바닥을 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패배 속에서도 길레미 피지컬 코치는 “역시 브라질이다. 밸런스가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 스태프들은 선수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올 시즌을 고민하는 그라운드와 주연 같은 조연들이다. ‘이게 무슨 축구냐’는 농담도 나왔지만 축구를 통해 고된 캠프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



전남 드래곤즈, 중원 보강

성남서 미드필더 김평래 영입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중원 보강을 위해 김평래(28·MF)를 영입했다.

180cm, 75kg인 김평래를 과천고, 중앙대를 거쳐 우크라이나에서 뛰다가 지난 2011년 성남에 입단했다. 2011년 성남의 FA컵 우승에 일조했으며 지난해에도 미드필더와 수비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성남의 FA컵 우승에 기여했다.

전남은 FA컵 우승 전도사 김평래의 영입으로 중원을 강화, 주전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전남 유니폼을 입은 김평래는 “살기 위해 전남을 택했다. 그라운드에서 죽을 힘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남을 좋은 팀으로 만드는데 일조해 ACL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태국에 이어 제주에 캠프를 차린 전남은 오는 18일까지 전지훈련을 실시한 뒤 광양에서 마무리 훈련을 갖고 3월 8일 예정된 제주와의 시즌 개막전을 준비한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KBO 리그’라 불러주세요” 올 시즌부터 브랜드 통합

미국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MLB)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상품 가치를 키워왔다.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뜻하는 MLB는 선수들이나 팬들에게 ‘꿈의 리그’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본격적인 10개 구단 시대를 맞아 프로야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 시즌부터 ‘KBO 리그’로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를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KBO는 프로야구의 브랜드화를 통한 리그

의 가치 향상과 야구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리그의 브랜드 확립을 위해 2011년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추진해왔고, 10구단 체제 출범을 앞두고 그 작업을 완성했다.

우선 그동안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던 명칭은 ‘KBO’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1군 리그 전체는 ‘KBO 리그’로 통칭하며, 페넌트레이스(시범경기 이후부터 포스트시즌 직전까지의 경기) 경기는 ‘KBO 정규시즌’으로 사용한다.

한국야구위원회 또는 KBO로 혼용되던 사

무국 명칭도 ‘KBO’로 통합하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 ‘KBO 사무국’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 KBO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와 대회도 KBO와 대회명을 합쳐 ‘KBO 시범경기’, ‘KBO 올스타전’, ‘KBO 포스트시즌’ 등으로 사용하며, 각종 시상 부문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춰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명칭으로 정리했다.

퓨처스리그도 ‘KBO 퓨처스리그’로 통일하게 적용된다. /연합뉴스